

202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안대응 2차 콜로키움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 일 시: 2020. 7. 29.(수) 14:00~16:00
- 장 소: 제주인권교육센터 2층
- 주 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202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안대응 2차 콜로키움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개 요

일시 2020. 7. 29. (수) 14:00
장소 제주인권교육센터 2층

사회 : 고지영 정책연구실장

- 일정 14:00~14:05 참석자 및 외부인사 소개
- 14:05~14:10 인사말씀
-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14:10~14:20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발표
- 선민정(본원 연구위원)

좌장 :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14:20~15:40 각 기관별 의견 토론회
-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현민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
 -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 윤순희 (제주생태관광 대표)
 - 김신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총무국장)
 -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윤인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팀장)
- 15:40~16:00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 | |
|---------------------|------------|
| # 인사말씀 | 1 |
| # 발표 | 3 |
|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 선민정 연구위원 |
| # 각 기관별 의견 토론 | 13 |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김희정 관장 |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현민철 정책연구팀장 |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현정 팀장 |
| 제주생태관광 | 윤순희 대표 |
| 민주노총 제주본부 | 김신자 총무국장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홍명환 의원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윤인성 팀장 |
| # Memo | 43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 활동에도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윤인성 팀장님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제주테크노파크 진관훈 수석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몇 개월 만에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월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경제, 사회를 비롯한 전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관광도시 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에서 소매판매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 될 정도로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산업은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이기에 여성 일자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가 여성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아갈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콜로키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2차 콜로키움에서의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성 일자리 현장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애써주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

각합니다.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현민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님,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님, 윤순희 제주생태관광 대표님, 김신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총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여성 일자리 관련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체감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선 민 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2020 현안 대응 2차 콜로키움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2020. 7. 29.(수)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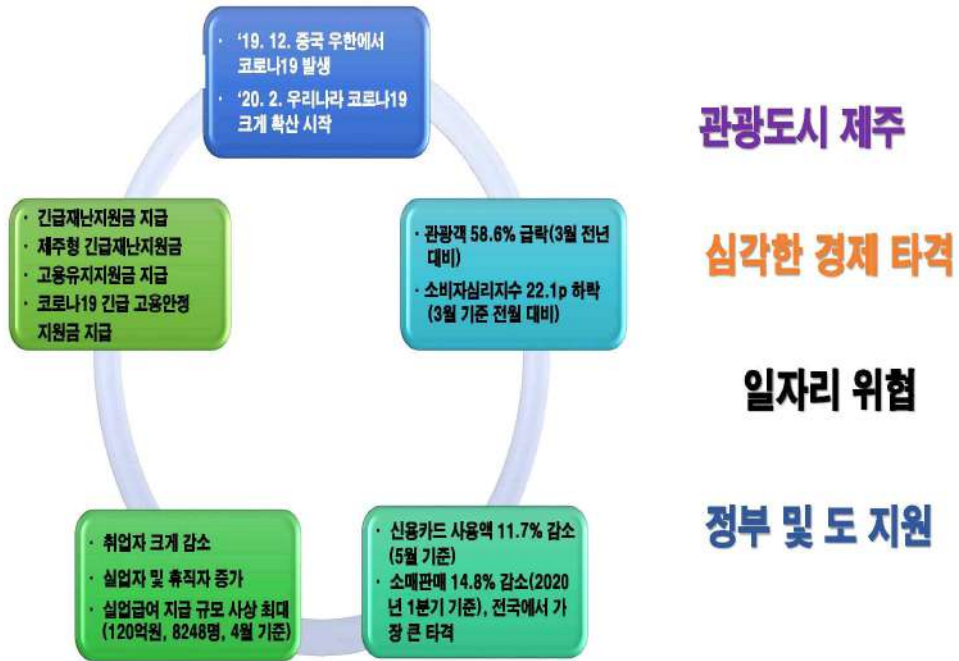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The image is a promotional poster for a colloquium. It features a background of blue and white hexagonal patterns.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the title '2020 현안 대응 2차 콜로키움' (2020 Current Issues Response 2nd Colloquium), the main topic '코로나19와 여성 일자리' (COVID-19 and Women's Employment), the date '2020. 7. 29.(수)', and the speaker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The logo of the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is at the bottom.

목 차

- Ⅰ.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경제위기와 일자리 타격
- Ⅱ.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 Ⅲ.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위기 대응방안

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경제위기와 일자리 타격



(한라일보, 백금탁, 20.5.19; 제주일보, 김문기, 20.7.16; 한겨레, 이경미, 2020.5.7)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해고 0순위, 여성?!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
가장 먼저 해고, 강제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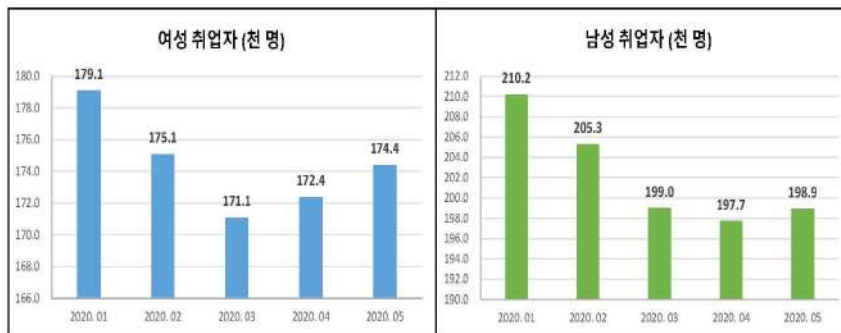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 및 업종
치명적 영향받음

취약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던 여성,
코로나19 감염 위험 더 컸음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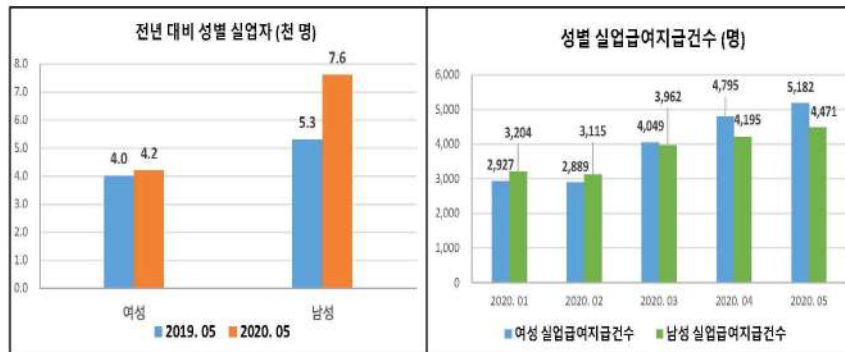
- 제주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급감하다 4, 5월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임. 남성도 취업자 수가 2020년 4월까지 급감하다 이후 다소 증가함
- 이는 정부 및 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와 효과로 다소나마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1월 대비 5월 여성 취업자는 4,700명 감소, 남성 취업자는 11,300명 감소
- 여성 취업자 수가 급감한 3월에는 1월 대비 8,000명 감소



주: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 2020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실업자는 여성이 200명 증가(실업률 0.1% 증가), 남성이 2,300명 증가(실업률 1.2% 증가)
- 제주지역에서 2020년 1월 대비 5월 여성은 실업급여지급이 2,255건 증가, 남성은 1,267건 증가
- 여성 실업급여지급건수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급증
-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급여지급건수 더 많이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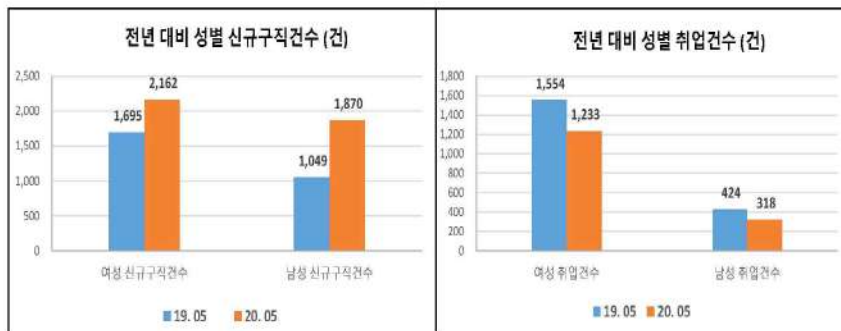


주: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한국고용정보원(2020). 고용보험 DB.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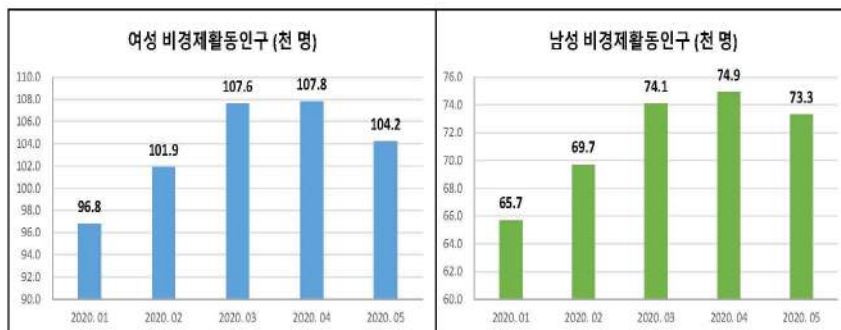
- 제주지역 신규구직건수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여성이 467건 증가(27.6% 증가), 남성이 821건 증가(78.3% 증가)
- 여성 신규구직건수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2,162건, 남성은 1,870건으로 나타나 여성이 292건 더 높았음
- 제주지역 취업건수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여성이 321건 감소(20.7% 감소), 남성이 106건 감소(25.0% 감소)
- 여성 신규구직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취업건수는 감소했음



주: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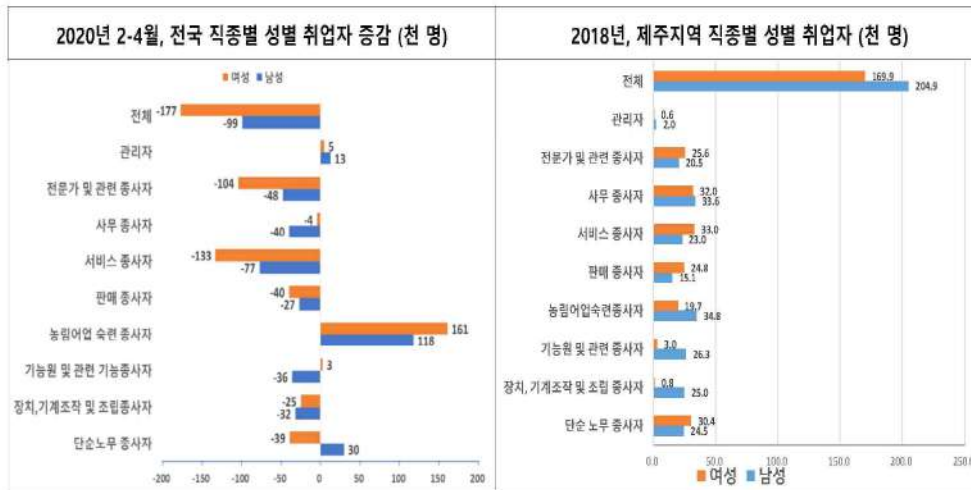
- 제주지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증하다 5월에는 다소 감소함.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수도 여성과 비슷한 양상임
- 2020년 1월 대비 5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7,400명 증가,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7,600명 증가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2020년 4월에는 1월 대비 11,000명 증가
- 여성들이 실업 후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 또는 제주지역의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일시적으로 단념하여 비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5월부터 시작된 정부 및 도의 지원 정책(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유추됨



주: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 전국은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직종별 성별 취업자 감소가 여성 서비스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코로나19는 대면하며 일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지역에서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33%)가 가장 많아 여성의 일자리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임



주: 전기획(2020)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요양센터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줄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었어요. (65세 이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데요.”
(요양보호사 김00 / 오마이뉴스, 여랑. 20.5.26)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을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라며, 돌봄전담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코로나19 동안 돌봄교실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모든 위험부담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
(돌봄전담사 김00 / 오마이뉴스, 오설아. 2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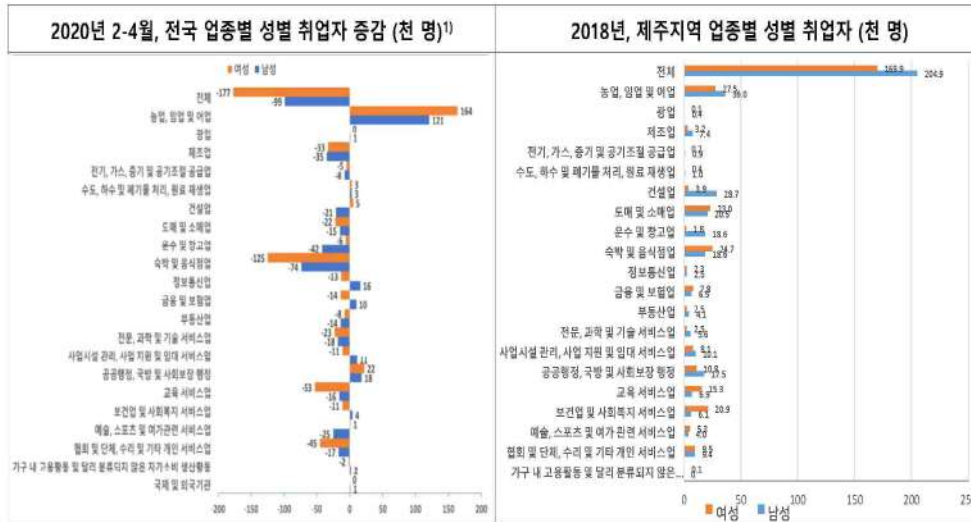
(제주일보, 진주리, 2023)



(경기일보 이연우, 2017)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 전국은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업종별 성별 취업자 감소가 여성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았음
- 제주지역에서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두 번째로 많이 종사하고 있어서(24.7%) 많은 여성들이 실업의 위험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임



주 1 전기백(2020)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감염병 사태로 인해 도내 관광서비스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부당해고에 내몰리고, 생활임금이 삭감당하고 있다” ...

“기업주들은 교묘하게 법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휴직과 연차사용 강요 등으로 생존권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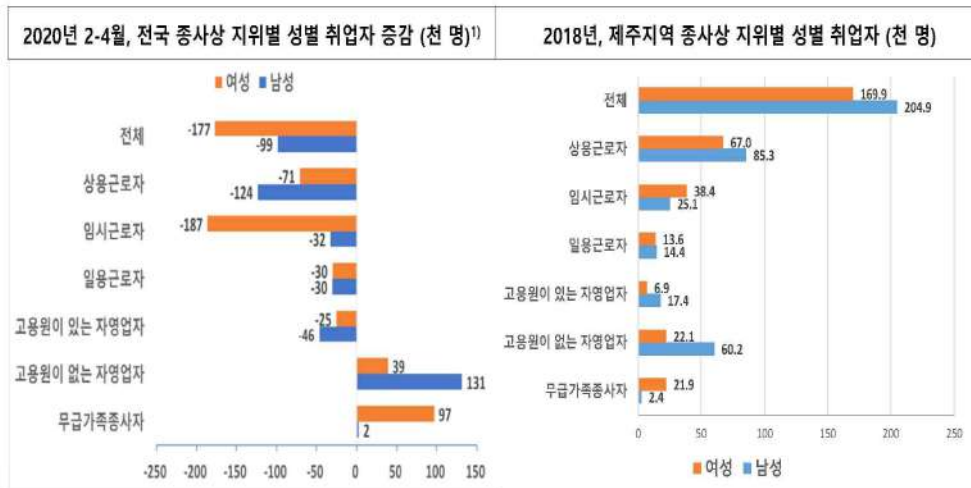
(제주관광서비스노조 / 제주매일, 이애리, 20.3.25.)



(제주매일, 이애리, 20.3.25)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 전국은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중사상 지위별 성별 취업자 감소가 여성 임시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에서 여성 임시근로자는 5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취업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주 1. 전기략2020,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II.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코로나 19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실직 경험 6.7배 더 ↑

코로나19 이후
여성은 남성보다
실직 경험 1.8배 ↑

(광주드림, 황혜윤, 20.6.21)

Ⅱ.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

“카페, 식당, 과외,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무기한 휴직을 권고 받아 당장 월세나 교통비 식비 등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마이뉴스, 이정화, 20.5.20)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던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직과 해고가 될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이정화, 20.5.20)

“공공기관 소속 미디어 강사인 프리랜서 B씨는 코로나19로 강의 요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몇 달째 무급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정화, 20.5.20)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콜센터상담원은 마스크 구입을 상담사 개인이 구매해야 하기도 했으며, 재택근무 시에는 교통비, 식대 등이 제외된 월급을 손에 쥐었다”

(오마이뉴스, 여름, 20.05.19)

Ⅲ.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위기 대응방안

여성 고용 안정 및 여성 집중 업종 지원·관리

- 해고, 권고사직, 휴직 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 금지 및 점검 강화
- 관광, 문화,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 여성 집중 업종 지원 및 관리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강화

비정규직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보호방안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Ⅲ.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위기 대응방안

뉴노멀시대 대응 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 개발 및 적용

- 관광·문화 산업의 새로운 사업 방법 및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 여성의 디지털 산업 일자리 개발
- 비대면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여성 교육·훈련 변화
모색 필요

- 여성 교육·훈련의 디지털 방식 지원
-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디지털 산업 분야의 여성 교육·훈련 신설 및 강화 필요

Ⅲ.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위기 대응방안

서비스종사자 지원 강화

- 불안정한 노동 지위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마스크 등 방역용품 지원

돌봄 지원 강화

-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 및 확대 필요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강화

❖ 참고 자료

1. 제주일보, "소비·고용 등 제주경제 실물지표 부진", 김문기 기자, 2020.7.16.
2. 한겨레, "코로나 경제피해 최대 지역은 제주", 이경미 기자, 2020.5.7.
3. 한라일보, "[제주 포스트 코로나19] (4)일자리", 백금탁 기자, 2020.5.19.
4. 제주일보, "개학 연기에 아이 돌봄 비상...5일까지 추가 긴급 돌봄 교실 신청", 진주리 기자, 2020.3.3.
5. 경기일보, "코로나19가 만든 색다른 어버이날... "1일 딸·아들 될게요"", 이연우 기자, 2020.5.7.
6. 제주매일, "제주관광업 종사자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이애리기자, 2020.3.25.
7. 광주드림, "코로나19...비정규직 실적 경험 정규직의 6.7배", 황해윤 기자, 2020.6.21.
8. 오마이뉴스, "재택근무 하자마자 월급 줄어...콜센터상담원이 겪는 이중고", 여름 기자, 2020.5.19.
9. 오마이뉴스, "코로나19시대의 여성 초단시간노동자... 여기가 '사각지대'", 이정화 기자, 2020.5.20.
10. 오마이뉴스, "멀티 플레이어' 돌봄전담사는 왜 정규직이 아닌란 말인가?", 오설아 기자, 2020.5.21.
11. 오마이뉴스, ""'인권·노동권' 이런 얘기 못 해... 우리 요양보호사 '물티슈'같다"", 여량 기자, 2020.5.26.
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14. 한국고용정보원(2020), 고용보험 DB.
15.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16. 전기택(2019),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1. 경력단절여성과 일자리

김 희 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현황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현황

- 200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력단절 이유로 여성 핵심연령층 고용률 낮다.
- 경력단절 겪은 후 낮은 근로조건으로 재진입하게 되고 이러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임금성장을 정체시켜 성별임금격차, 노동시장 전체 임금불평등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체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일자리 질이 낮은 편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속한 여성 취업자에서 경력단절 경험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비단절 여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 구인관련 : 도내기업 여성일자리 고용 감소 (구인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 무급휴가, 채용취소발생
- 구직관련 : 초중고 학교 개학 연기 등 아이돌봄으로 인해 30대~40대 여성 구직자보다 중장년 여성 구직 상담 증가
- 훈련관련 : 코로나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일정 연기 및 중지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직업교육훈련 강사등의 생계유지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올해 2월부터 제주도내 제조업에서 무급휴가 및 근로자감축 등 경영난이 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음. 5월 경부터는 호텔 등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무급휴가, 근로자감축등의 경영난이 많이 발생. 여성근로자들이 수적으로 많았으며 그 중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들이 주로 대상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함.

● 애로점

○ 올해 새롭게 생긴 현장의 고민

- ⇒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훈련방식에서 필수적인 ‘훈련장’이라는 공간을 열지 못하는 현 상황은 훈련기관·훈련생과 훈련생간의 상호작용이 중단됨을 뜻하고,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동력인 ‘관계맺기’가 빈곤해짐을 의미, 관계맺기의 회복이 더욱 더 중요해짐.(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운영이 장소가 아닌 방식의 전환에 대한 고민)

● 정책 요구

○ 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력을 단절 시키지 않게 하는 정책방향 설계가 중요해 보임.

- ⇒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오랜시간동안 여전히 육아 등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지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기존의 고용, 육아돌봄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등 별도로 운영되어지는 부분들을 한 체계로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

○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사업의 온라인 지원환경 구축 및 교육,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콘텐츠 개발 필요.

-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과 관련하여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온라인콘텐츠 공동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 실제로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늦춰진 채용일정과 채용규모 축소, 제조업, 관광서비스 등 제주지역 산업현장 상황이 악화 되면서 경력단절 여성 등 취

업 취약계층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기업처 정보제공 및 면접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특히 화상면접, 온라인 취업서류 제출등 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더욱더 취업과 관련된 기회 등에서 더욱 소외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임.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

- 결혼이민여성 「원위크 온&오프 취업박람회」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비대면·비접촉의 일상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디지털 온라인마케팅에 집중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취업박람회를 온라인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기존 오프라인 방법으로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채용시장 동향 등 트렌드를 반영하여 취업연계.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강연 콘텐츠 “경력이음”
 - 내용: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향후 지속가능한 온라인콘텐츠 개발과 취업능력개발 기회 제공(총 4강 제작)

- 「화상면접,온라인교육영상 제작을 위한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 환경구축 & 온라인 여성JOB CAFE」
 - 내용: ① 온라인 화상면접실 환경구축
 - ② 온라인교육영상 제작환경 구축 경력단절여성 온라인교육 (Zoom,온라인 교육등) 플랫폼 운영
 - ③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기반 온라인취업박람회 온라인 배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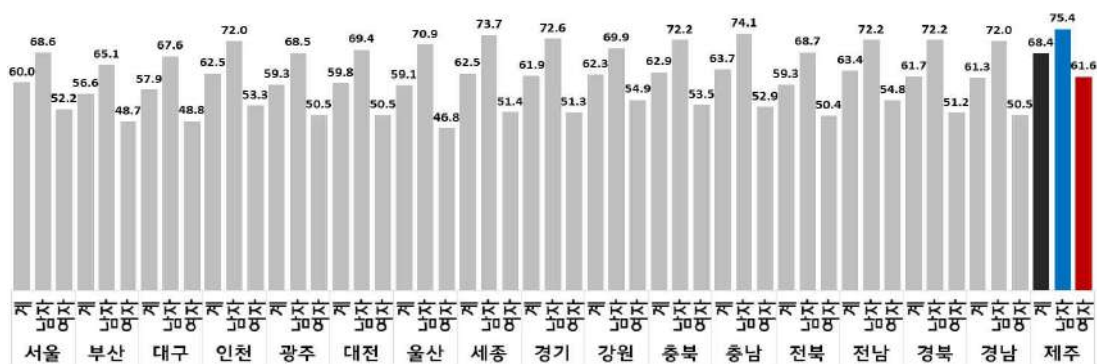
토론 2.

제주지역 여성노동자 직종 특성과 개선방안 논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중심으로)

현 민 철(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

● 현황

제주지역의 고용률을 2019년 기준 남성 75.4%, 여성 6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주요시도의 여성고용률이 50% 내외라는 점에서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제주에는 배우자가 있는 15만5천가구 중 60.8%인 9만4천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별 맞벌이 가구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2020.6.23.)

제주지역의 고용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맞벌이 비중은 전국 최상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정규직 비중은 44.6%로 전국 평균(36.4%)을 8.2%p 상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크게 미흡하다. 제주지역의 상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동시가입 기준)은 66.1%로 전국(평균 71.3%)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일자리 질의 낮은 수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심화(고용안정성이 높은 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던 데 반해 실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산업 등의 종사자가 많음)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4월~6월까지 수행되었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전세버스운전기사 17.0%, 학교방과후강사 15.4%, 외부강사 13.9%, 그 외 기타프리랜서 12.8%, 국내관광,통역안내사 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기계운전원, 대리운전기사, 전세버스운전기사, 택배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여성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 | 1차 | | 2차 | | |
|----|-------------------|--------------|------------|--------------|------------|--------------|------------|
|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
| 특고 | 건설기계운전원 | 445(7.8%) | 6(1.3%) | 1 | 444 | 6(1.4%) | |
| | 대리운전기사 | 404(7.1%) | 48(11.9%) | 153 | 17(11.1%) | 251 | 31(12.4%) |
| | 보험,대출,카드모집인 | 428(7.5%) | 350(81.8%) | 79 | 59(74.7%) | 349 | 291(83.4%) |
| | 택배원 | 35(0.6%) | 1(2.9%) | 3 | 1(25.0%) | 32 | 0(0.0%) |
| | 학습지교사 | 118(2.1%) | 106(89.8%) | 35 | 32(91.4%) | 83 | 74(89.2%) |
| 프리 | 강사(외부,스포츠등) | 794(13.9%) | 641(80.7%) | 305 | 244(80.0%) | 489 | 397(81.2%) |
| | 국내관광,통역안내사 | 680(11.9%) | 511(75.1%) | 205 | 167(81.5%) | 475 | 344(72.4%) |
| | 그 외 기타프리랜서 | 734(12.8%) | 455(62.0%) | 181 | 127(70.2%) | 553 | 328(59.3%) |
| | 전세버스운전기사 | 970(17.0%) | 16(1.6%) | 440 | 8(1.8%) | 530 | 8(1.5%) |
| | 학교방과후강사 | 881(15.4%) | 735(83.4%) | 419 | 354(84.5%) | 462 | 381(82.5%) |
| | 해설사(문화관광,자연,지질 등) | 233(4.1%) | 134(57.5%) | 102 | 59(57.8%) | 131 | 75(57.3%) |
| 합계 | 5,722(100.0%) | 3,003(52.5%) | 1,923 | 1,068(55.5%) | 3,799 | 1,935(50.9%) | |

이들 직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성과창출에 따른 보상체계 및 낮은 진입장벽, 수요대비 공급인력 과다 등으로 인해 관련 직종 종사자가 매우 많아 특고·프리랜

서 간 경쟁이 심화, ② 소득의 변동성으로 가계경제에 영향, ③ 낮은 협상력 및 정보력으로 인해 겪게되는 부당대우나 간섭, ④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애로점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성(매우 많은 관광업 관련 영세업체)과 공공부문 중심의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편중으로 전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 및 국가간 경제보복(사드배치 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지하고 지역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고·프리랜서 유형에 따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네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업무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특고·프리랜서들은 계약달성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 및 숙련도와 별도의 지식, 정보, 협상력, 네트워크 등의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싼 특고·프리랜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양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변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특고·프리랜서들이 고립분산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특고·프리랜서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수행하며, 업무 종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모든 과정에서 큰 조직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비하여 낮은 협상력 및 정보력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나 간섭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고·프리랜서들은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체계가 사용자와 임금노동자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어 특고·프리랜

서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 요구

- 1) 본업에 집중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조직 및 단체의 확보가 필요함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면서 기관 및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대신 프로젝트에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 형태의 특고·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불안정,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대우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업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기능 및 숙련도와 별도로 행정업무 지식, 정보, 협상력, 네트워킹 등의 자원과 노력없이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들의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중 지원조직 및 단체에 활성화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원조직 및 단체의 주요 기능으로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 행정, 회계, 재무, 법무 등 계약 및 사업관리 △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장비,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제공 △ 지불보증기금, 사회보험 혜택 △ 비즈니스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전문성 강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위탁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프리랜서 협동조합 또는 직종별 기존 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벨기에의 ‘스마트(SMart)’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거나 지속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제주지역 특고·프리랜서 여성노동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단시간근로형태, 건수 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 형태로 일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소득이 낮아 고용보험 가입비용이 부담이 되어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더 큰 문제는 ① 초단시간근로자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 시키는 것과 ②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수급 받게 되는 실업급여액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관련법령 검토]

①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범위 확대

현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는데, 종전에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령(고용보험법 제10조 등)에 의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계적 법 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현재는 일정조건 하에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음.

- ① **2019.6.25.시행** 초단시간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2018.7.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② **2019.10.1.시행**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주 2일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2019.8.27. 개정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

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지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중략)... <개정 2019. 8. 27.>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부칙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통상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간 실업급여 지급요건 구분

| 구분 | 1주소정 근로일수 | 1주소정 근로시간 | 기준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기타 | |
|---|-----------------|----------------|--------------------|------------------|--------------|--|
| 통상 근로자 | 통상 5일 | 15시간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 통산 180일 이상 | | |
| 초단시간 근로자 | 3일 이상 | 15시간 미만 | 이직일 이전 18개월 | 통산 180일 이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 | ※ 2019.6.25. 시행 | | | | | |
| | 2일 이하 | 15시간 미만 | 이직일 이전 24개월 | 통산 90일 이상 | | |
| ※ 2019.10.1.시행 ※ 부칙에 의해 시행일인 2019.10.1. 이전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 | | | | | |

④ 실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초 인정시기

①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로서, 1주 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현재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근로자와 수급자격이 동일함.

<예시>

1주 15시간 미만 주3일 근로 예술강사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시행일인 2019.06.25. 이후 최초 고용보험 가입한 후 단절없이 근로하였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0주 / 14개월 소요)을 충족하는 최초 시점은 2020.8.20.이 됨

②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로서, 1주 2일 이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서 1주 2일 이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고, 통산 9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예시>

1주 15시간 미만 주2일 근로 체육강사로서 고용보험법 제4조 제2항 시행일인 2019.10.01. 이후 최초 고용보험 가입한 후 단절없이 근로하였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90일(약 45주 / 10.5개월 소요)을 충족하는 최초 시점은 2020.8.11.이 됨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면, 제주지역의 학교방과후강사 직종과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주2일(주15시간 미만) 학기 중에만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자격 충족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사회안전망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대안 마련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지역의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가입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가능 유무에 대한 컨설팅 △ 개인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세제혜택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컨설팅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확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토론 3. 제주사회적경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임 현 정(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 사회적경제 동향

-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EU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통한 정책 실행 강화 등의 방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
-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형태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사회적 인식·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2010년 약 500개 →2019년 3000개소)

기여성과

- 고용창출
 -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 고용안정(기업생존율)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87%,
 -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99.2%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통한 소득 창출 기반 마련으로 소득양극화 해소
-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

「2017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 現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1) 사회적경제비서관직 신설

- 대통령 아젠다로서 국정과제 우선순위
-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민관협치와 부서간 조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확대

2) 사회적가치 기반 국정운영, 성과평가 실시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중 50%를 사회적가치 지표로 구성
-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가치 추진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 점검

3) 사회적금융,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설치 및 일반 금융과 신탁 등 참여 확대

「2020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평가-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적경제전문위원장」

□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 제주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그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외형적 성장을 거듭,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2019년 12월 현재 470개소로 2011년 대비 8배 이상 증가, 관련 종사자도 2천명을 넘어서고 있음

○ 유형별로는 (예비)사회적기업 132개, (사회적)협동조합 283개, 마을기업 36개, 자활기업 19개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예비)사회적기업도 작년부터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추이>

(개소, 중복포함)

| 기업수 |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 체 | | 282 | 327 | 382 | 470 |
| 사회적 기업 | 예비 | 28 | 25 | 29 | 77 |
| | 인증 | 38 | 42 | 51 | 55 |
| | 소계 | 66 | 67 | 80 | 132 |
| 협동조합 | 일반 | 153 | 187 | 220 | 250 |
| | 사회적 | 9 | 15 | 22 | 25 |
| | 소비생협 | 8 | 8 | 8 | 8 |
| | 소계 | 170 | 210 | 250 | 283 |
| 마을기업 소계 | | 32 | 33 | 34 | 36 |
| 자활기업 소계 | | 14 | 17 | 18 | 19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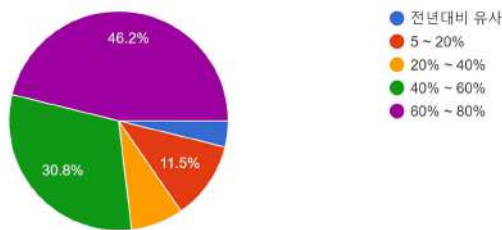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판매·가공 및 식품제조 분야가 35%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관광·문화·교육분야, 사회서비스분야 순으로 제주지역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유입은 마을 및 주민중심 커뮤니티비즈니스, 여성·청년·중장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 인큐베이팅 사업, 지역문제해결형 혁신 사업 주체 등 제주지역 다양한 분야와 협력 과정에서 유입되고 있음
- 또한 기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의 활동력 있는 실행주체로서 상품의 생산·유통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농업, 신재생에너지, 사회성과연계채권(SIB_social impact bond), 커뮤니티케어, 지역혁신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지역에 파급력있게 지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사회적경제 기업 애로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기업 경영애로사항 조사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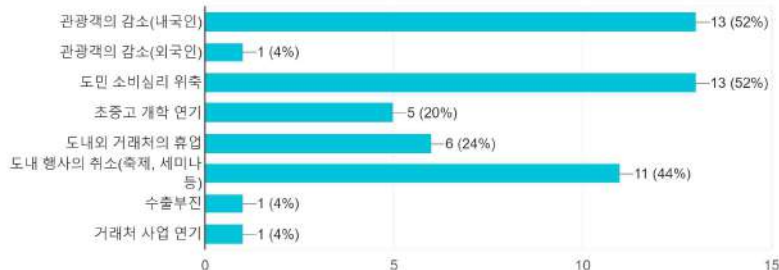
○ 주요 조사 결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정도는 어떻습니까?(전년 동월 대비)
응답 26개



- ▶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0 ~ 8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40 ~ 60%로 응답한 기업도 30% 가량을 차지하면서 **절반 이상의 매출 하락세를 보인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75%를 넘었음**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 가능)
응답 25개



- ▶ 매출감소의 요인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질문한 결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도민 소비심리 위축이 같은 비율(52%), 도내 행사(축제, 세미나 등)의 취소(44%)도 큰 비중으로 매출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남
- ▶ 제주 사회적경제기업은 도외의 소비자 및 관광 연계 소비층이 많아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더불어 공공서비스 용역 등의 영향을 받아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 매출 편차가 큼

긴급자금 융통 시 필요 규모

- ▶ 각 기업에 긴급자금 융통 시 필요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2억원에서 최소 1천만의 범주에서 자금융통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인증사회적기업의 자금 니즈가 가장 컸으며(평균 75백만), 사회적협동조합이 50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이 47백만원으로 뒤를 이었음

○ 기업 경영 애로 사항 청취

| 분류 | 내용 |
|-------------|--|
| 운영비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임대료 부담 - 종사자 인건비 부담 - 원재료 구입비용 증가 - 매출 감소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원리금 납부) |
| 사업계획 차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해 영업 준비 및 사업관련 협의 등이 올스톱 되어 올해 사업목표 달성이 불투명함 - 현 상황으로 인한 고객 소비패턴의 변화가 우려됨 - 전반적인 소비시장 위축으로 마케팅도 소용이 없는 상황 - 직원의 사기저하가 염려됨 - 금융조달을 위한 상담조차도 쉽지 않음 |
| 비즈니스 방식의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가 모여야 가능한 교육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매출 회복 전망 불투명 - 연쇄적 자금동결로 인한 결재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음 |

○ 지원 아이디어

| 분류 | 내용 |
|---------|--|
| 지원사업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비 등의 조기 집행을 요청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의 조기 실행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함 - 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 |
| 금융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운전자금 대출(5백만 ~ 10백만) - 대출 시 상환 기간을 길게 해주었으면 (5년까지) - 기 대출자의 추가대출 애로 해소 요청 (보증한도 완화 등) |

| 분류 | 내용 |
|-------------|---|
| 고정비 관련 아이디어 | - 임대료 부분의 안정화를 위해 유휴공간 활용 및 공유 사무공간, 공동작업장 등의 프로젝트 진행이 필요함(시민자산화) |
| 안전 관련 | - 사회적경제 섹터 내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마스크를 배포했으면 함 - 보건, 위생 영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필요 |

□ 필요한 제도활용과 정책 아젠더

-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모델 변화의 필요성은 전 산업과 생활 전반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활용 역량 강화와 지역의 고유한 로컬 브랜드로 전환, 비즈니스모델 변경을 위한 MVP(Minimum Viable Product)사업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업 변경과 추가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비접촉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더불어 소규모의 지역 중심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예측 또한 한편에서 거론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참여 주체, 운영방식, 그리고 사회적가치를 고려할 때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이자 상호 경제 주체로써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평생교육 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의 교육 접근성 확대
 - ▶ 전달체계로써 커뮤니티케어가 아닌, 마을 커뮤니티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 그렇다면, 기업으로써 요구받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실험 해 볼 수 있도록 공간제공과 인큐베이팅 지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 시민자산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위탁, 비영리스타트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혁신가 육성
 - ▶ 청소년, 여성, 중장년 커뮤니티비즈니스 및 사회적경제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확대
- 또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및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특구(예 : 괴산, 구례 자연드림파크 조성) 또는 기재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제주 유치

- ▶ 적극적 사회적경제 기금, 사회연대 기금 조성(제도 및 수행주체 육성)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아젠더의 변화와 발맞춰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활용하여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로 들쭉이고 있다는 점. 정책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극복하고 사람이 중심인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변화를 위해 활용되기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적극적이 참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그린뉴딜(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산림자원활용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와살림복합파크, 그린리모델링)
 - ▶ 디지털뉴딜(IT기술접목 커뮤니티케어, 온라인스토어 및 체험연계 BM, 기술접목 취약계층 교육콘텐츠 개발)
- 특히 제주의 경우 다양한 지역자원과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 개발과 주체 육성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주 행정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할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함

토론 4.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컨택트시대의 관광

윤 순 희(제주생태관광 대표)

1. 관광도시 제주지역, 단체관광 악화로 인한 일자리 영향과 현재

- 2019년 대비 5월 누계가 39%, 개별여행은 15%, 단체는 98% 감소
- 단체관광의 감소는 여행사를 통한 관광으로 관광안내사, 관광통역사, 문화관광해설사, 버스기사 등의 다양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여성집중 일자리의 유형으로 여성의 실업을 심각
- 주)제주생태관광 또한 직장인 힐링워크샵, 단체워크샵, 교육여행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10명 내외의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단체여행시장 금지로 정규직을 제외한 프리랜서들의 일자리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여행을 제외한 숙박, 음식, 체험 등의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단체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타격으로 휴업하는 곳이 속출하여 이들 업종의 일자리 또한 위기, 이들 일자리 또한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으로 여성의 실업율이 증가하게 됨

2. 일자리 차단으로 인한 업계의 이종고

- 관광서비스 업종은 대면서비스로 실습과 경험으로 인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짐
- 기초나 심화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양성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업계에서의 경력이 있어야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최소 6개월의 경력을 요구함
- 단체시장의 악화로 매출의 영향 못지않게 대면업무 기회의 상실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차질을 빚게되어 경영에 이종고 초래
- 타업계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어 2021년 인력공급에 차질이 예상

3. 산업위기 대응방안

- 언택트 시대에 부합한 ‘따로 또 같이’의 트렌드 반영하고 디지털기술과의 제휴
- 라이프웨어, 클래스101 등 on-line 산업의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친자연문화 수요급증에 대응한 자연자원 활용한 생태관광콘텐츠 개발
- 다수의 인원을 인솔하던 기존의 인솔과 체험성 콘텐츠에서 벗어나 취향과 니즈에 부합한 소수를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 유명한 특정 장소를 코스에 넣어 가 보았다라는 관광에서 관광객의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하는 콘텐츠가 필요.
-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조명하고 여행지가 아닌 여행 그 자체로 인해 삶이 바뀐 사람들을 소개,
- 개발된 콘텐츠에 따라 일자리 성격도 바뀌게 됨,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
- 밋줄놀이지도사, 놀이지도사, 트리클라이밍, 명상, 요가, 트래킹, 치유댄스, 캠핑지도사, 여행복기척자 등등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관광은 경험소비재로 누군가에는 일상탈출이고, 누군가에는 도피이고, 누군가에는 힐링 등 다양한 가치를 안겨줌
- 최근 여행의 트렌드는 건강과 몸매를 중시, 삶의 질을 중시, 공정함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도, 채식주의가 유행하고 있는데 제주의 관광산업도 이를 반영해야 함
- 에코투어리즘, 웰니스투어리즘 등의 성장률은 기존의 관광성장율을 앞서고 관광비용은 높음
- 호텔에 암벽을 설치하거나 최첨단의 헬스기구 등 고객 서비스를 갖춰야 함
- 밀레니얼 세대는 여행으로 삶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점에 주목해야함
- 에어비엔비의 상품들은 요가와 명상, 산림욕, 온천 등이다. 이 상품의 고객은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Z세대임. 건강관리를 삶의 주요 가치로 인식하는 노년층의 웰니스 여행과 달리 젊은 층의 웰니스 여행은 감정과 지식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반영, 기술의 발전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을 예상

- 이렇게 변해가는 여행자에게 제주의 가치를 어필할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음
- 관광은 영혼의 양식과 같은 가치상품으로 디테일의 한끝차이로 감동이 달라진다. 최근 전세계 유명 호텔에서는 ‘인스타그램 버틀러’를 고용하고 있음, 인스타그램버틀러란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해주는 호텔리어를 말함. 이 버틀러는 단지 사진을 대신 찍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포토제닉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최고의 사진을 위한 포즈를 알려주거나 다양한 경험을 위한 액션캠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리조트도 있음

4. 고객 충성도가 높은 지속가능한 관광은 그 지역 자체가 환경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성숙해야 가능,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 자원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관리하고 지역주민이 그 가치를 알아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토론 5. 코로나19이후 여성노동자의 어려움(노동환경)과 정책 제안

김 신 자(민주노총 제주본부 총무국장)

1. 현황

1) 호텔사업장 불법부당행위(* 제주관광서비스노조에서 제보 받은 사례)

① A호텔

- 2~3개월 상습적 임금체불
- 3/27 ㉠조합원 4/30자로 계약만료통보(경영상의 이유), 4/1 ㉡, ㉢조합원도 계약만료통보
- 이 와중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

② B호텔

- 무급휴직 강요(20일)
- 이후 예약률이 높아지자 20일 중 5일은 근무, 그 5일 근무에 대해 이후 대체 휴가로 사용 요구

③ C호텔

- 무급휴직 강요 : 2월(2일), 3월(1일), 4~5월(7일)
- 대표가 전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함
- 이후 권고사직 진행
- 근로감독관 현장지도 후 5월 무급휴직은 철회, 4월 휴직은 그대로 진행

④ D호텔

- 상습적인 직장 갑질과 막말로 지난 1월, 근로감독관이 행정 지도함

- 1월에 3명을 해고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정 이후 2명은 권고사직 합의를 했으나 임금 미지급. 현재 휴업상태라 나머지 1명에 대한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상태
-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시간을 19시간으로 정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임금체불 소송 준비 중

⑤ E호텔

- 협력업체 3월 교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이유로 룸메이드 25명 해고
- 근속년수 3~4년차 직원 마이너스 연차(미발생 연차) 사용 강요
- 근로감독관 조치 없음. 사용연차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2) 관광통역안내노동자 현황

- 코로나 이후 일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소득이 없음. 전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음
- 지자체와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50만원, 3개월 지급받음
- 장기적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대책 미비
- 특수고용노동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 제주도 면담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여행사 계도 요구함.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노동자성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 해소 차원 (단기적 요구)

3) 여성노동자 상담 사례(* 민주노총제주본부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상담)

① 호텔 메이드

- 코로나19 이후 호텔에서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면서 권고사직 요구 받음
- 권고를 받은 노동자는 일반사직서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까봐(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될까봐)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를 명시한 '권고사직서'를 요구함
- 하지만 호텔에서는 믿으라고만 하면서 사직서를 종용함

② 호텔 정규직 메이드

- 코로나19 이전에는 호텔 정규직으로 청소 일을 했음 (총2명)
-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를 핑계로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도록 하고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함 (급여 삭감, 노동시간 감소)
- 최근부터는 호텔이 운영하는 다른 곳의 용역직원 1명을 불러 청소 일을 시키기 시작했음. 정규직 직원 중 1인은 계속 무급휴직 상태.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제주여행이 활성화되어 호텔이 안정화되었지만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위기를 핑계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시도로 보임)

③ 피부관리사

- 경력직으로 일을 하던 중 2020년 초부터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 중인 상태
- 코로나19 이후에 병원에서도 돌아오지 않길 원하고 있지만 본인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동료들이 하나둘 그만 두고 있는 상황임.

④ 면세점 여성노동자

- 제주공항 내에서 일하는 면세점 여성노동자
- 코로나19이후 무급휴직동의서 받아 무급휴직 중
- 옆의 용역회사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주는데 이마저도 못 받는 상황
- 동의는 했지만 어쩔 수없이 동의하게 된 것이어서 되돌리고 싶음

4) 도민 노동법률 상담 유형별 보고

- 상담기간 : 2020. 1. 1. ~ 7. 10.
- 상담유형별 건 수

| 번호 | 상담유형 | 건수 | 비율 |
|----|--------------|----|-------|
| 1 | 임금 | 41 | 25.5% |
| 2 | 근로시간(휴게, 휴일) | 12 | 7.5% |
| 3 | 연차 | 3 | 1.9% |
| 4 | 해고(전직, 전보) | 36 | 22.4% |

| 번호 | 상담유형 | 건수 | 비율 |
|----|--------------|-----|--------|
| 5 | 차별(여성, 비정규등) | 3 | 1.9% |
| 6 | 정년 | 0 | 0.0% |
| 7 | 산재/ 노동안전 | 21 | 13.0% |
| 8 | 직장내 괴롭힘 | 7 | 4.3% |
| 9 | 집단적 노사관계 | 17 | 10.6% |
| 10 | 기타 | 21 | 13.0% |
| 합계 | | 161 | 100.0% |

5) 기타

- 00호텔 카지노사업장 휴업수당 감액
 - > 휴업수당 100% 감액 신청이 제주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짐
 - > 휴업수당이 0원(무급휴업 상태)
 - >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 감액 신청이 인정된 제주지역 첫 사례임.

2. 애로점

- 1) 코로나19 빌미로 한 불법, 부당행위 다수 발생해 노동권 불안.
 - 휴업수당 미지급 및 감액, 연차 사용 강요, 강제 무급휴직. 부당해고 등
- 2) 고용 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
 - 위기 때마다 사라진 여성 일자리(1997년 경제위기(IMF), 2008년 경제위기 등)
 - 여성 우선 해고 여성 비정규직화 급속도록 추진
- 3) 가족 내 돌봄 책임 가중, 여성노동자 책임 가중
 - 3~4월 초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고용노동부) 분석 : 여성신청자(69%), 남성신청자(31%)

3. 정책제안

1)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집행 필요

-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그침

2) 고용-실업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고를 최대한 금지

- 특히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사업장의 해고 전면 금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미적용 다수

(휴업수당, 부당해고 금지 및 구제신청, 연차휴가, 노동시간/ 현장노동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등)

3) 불법부당행위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 제주도, 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실태조사 및 시정 조치
- 조사과정에서 성별 영향 조사, 성별 분리 통계 필요

4) 실업자와 휴업자의 생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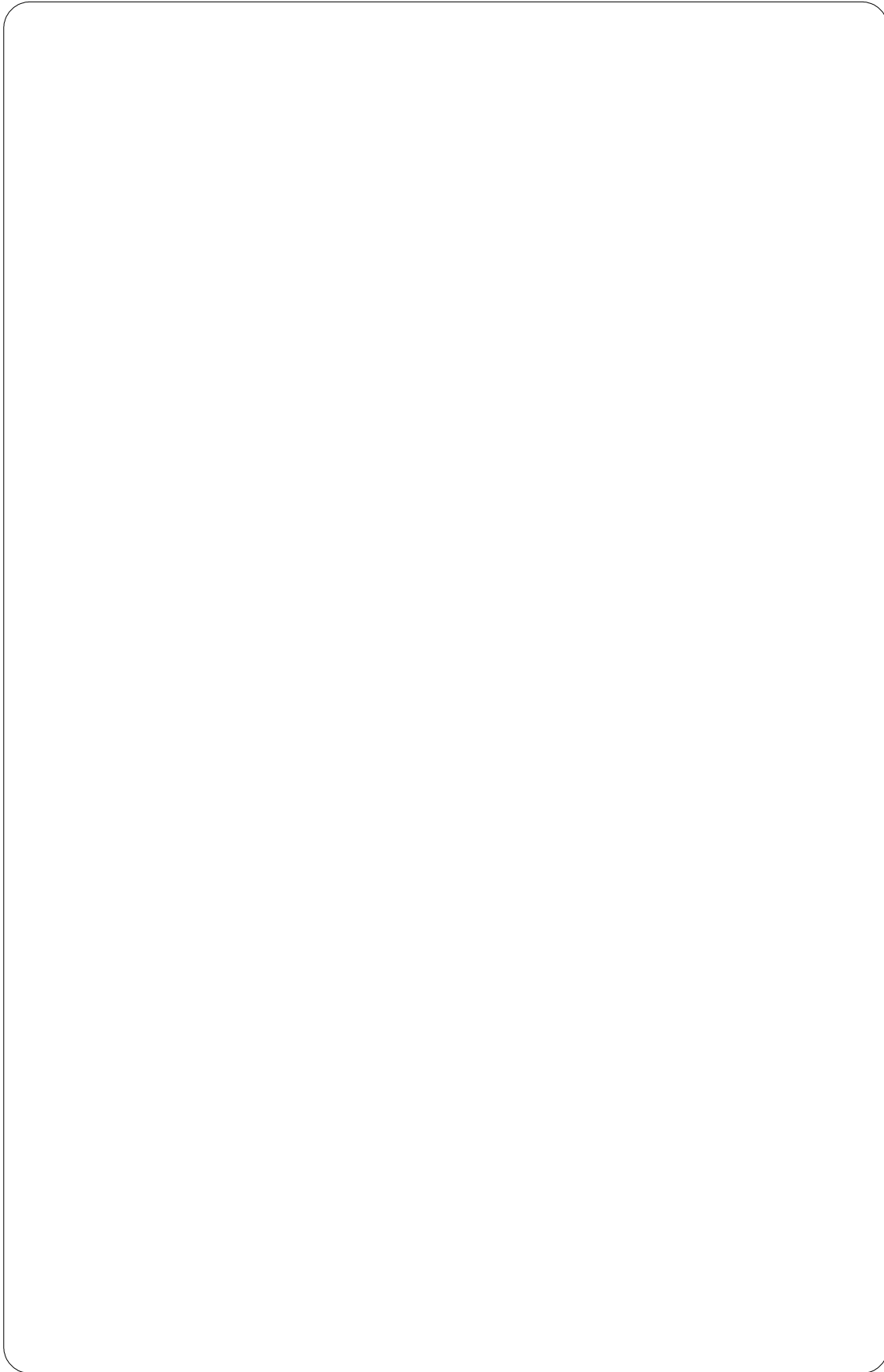
- 특수 고용, 시간제 노동, 플랫폼 노동, 가사 노동 등 소득 급감에도 실업급여 미수급자 많음 -> 긴급 실업 수당 및 전 국민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5) 돌봄정책

-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돌봄노동의 중요성 확인됨.
- 사적공적영역에서의 성별분업 해소를 위한 계획 필요. 가족 내 돌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 여성고용정책과 연동된 돌봄 정책 필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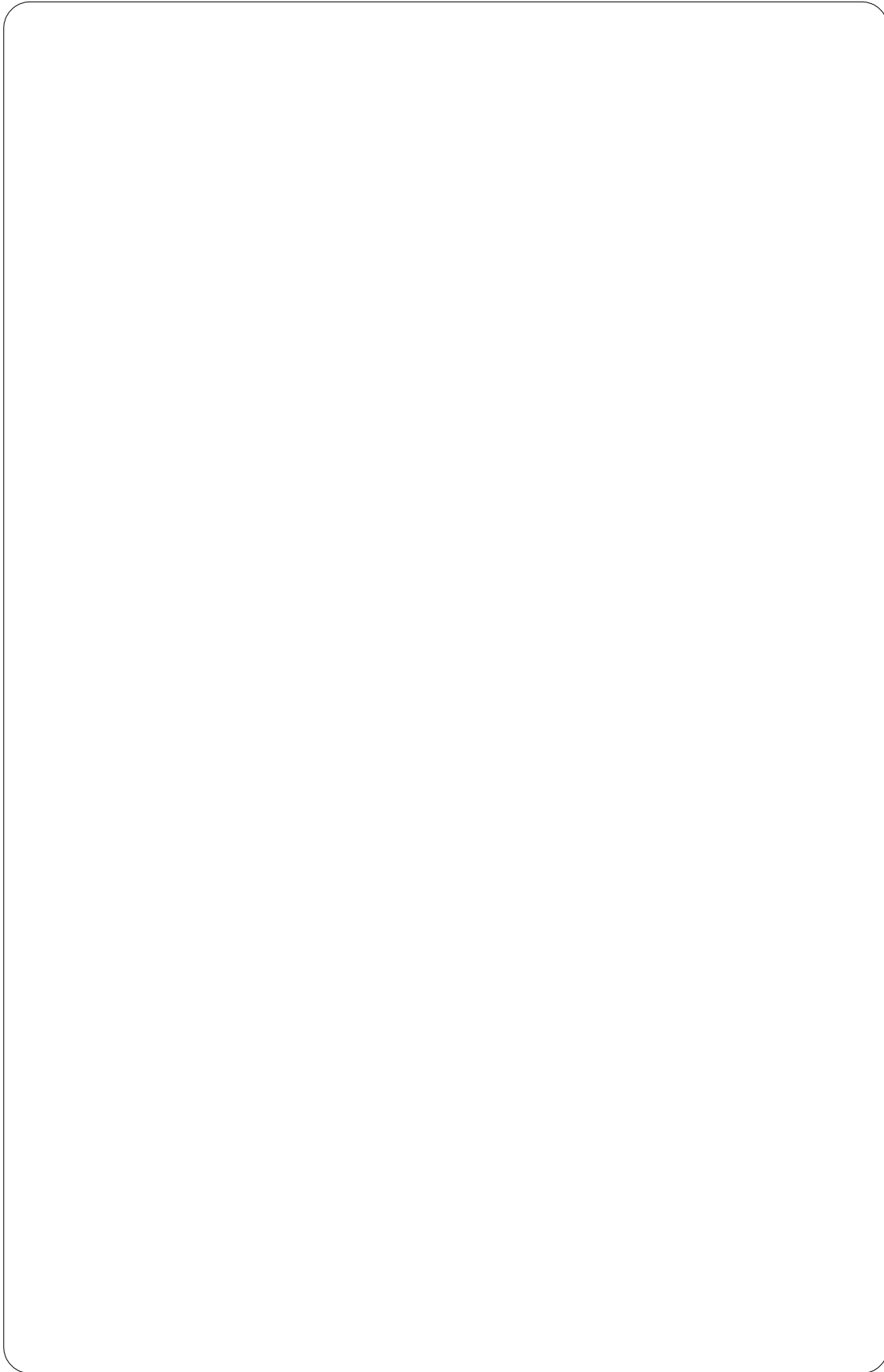
토론 6.

홍 명 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토론 7.

윤 인 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팀장)



Memo

Memo

Memo